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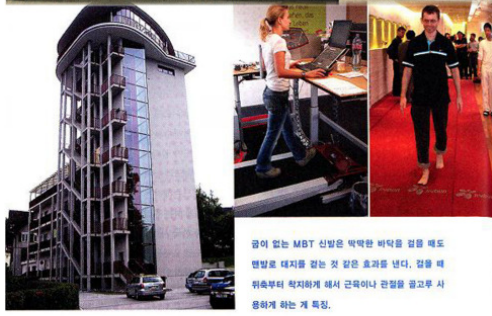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작곡가
진 은 속

광고주가 뽑은 최고의 모델 사연비
세계 50개국에 내비게이션 수출하는 이봉형 지오틸 대표
세계의 정원 디자인하는 김정운 벚문진 부부
뮤지컬 <산> 제작한 영화제작사 김미희

한기 3,000원
77797940004
ISBN 979-84-42



Business
내 사업의 목적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
칼 필러 MBT코리아 회장



꿈이 없는 MBT 신발은 딱딱한 피부를 걸을 때도 탈발로 데지를 받는 것 같은 효과를 낸다. 걸을 때 뒤통수부터 목까지의 뼈는 근육이나 관절을 굽고 사용하지 하는 게 특징.

안드레아스가 팔이고 북부비만이 오기 싫삼이며, 일의 집중도 떨어진다 한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기판테를 사용하면 다이어브도 좋고 집중도 향상시켜 준다고 자랑했다. "현재 스위스 프루리그 1위 축구팀 선수들이 이 매트릭스 이용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 스위스 내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은행 직원 300명이 의자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산에 낸 기판테 1호칭에서는 40년 동안 루머 때문에 사달이 온 할머니가 한 달 동안 매트릭스를 쓰는 트레이닝을 한 결과 가벼운 조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를 봤고요."

세 번째는 이틀 하드웨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그는 걷는 동안 신체 관절을 10분의 1mm까지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 개발했다. 인체공학적인 분석을

통해 개인에 맞는 맞춤형 트레이닝이 가능하도록 각종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칼 필러 씨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것은 자신이 기계공학 전공한 공학도인데다 MBT 신발을 개발하며 쌓은 노하우와 500만 명이 넘는 전 세계 MBT 신발 고객들이 보내준 편지 덕분이라고 한다.

"들어보면 제가 한국과 인연을 맺은 것부터 시작해 영어 어휘 스위스로 들어가, 사업에 실패해 신발을 개발하게 된 모든 과정들이 하나씩 제시 생애는 재능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내 인생 전반을 반추하는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만나서 하자"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간단하게 들려줬다.

1952년 스위스 로코르에서 태어난 그는 취

스위스 취리히 공항에서 승용차로 두 시간 남짓 거리에 자리 잡은 한적한 시골 마을 로코르빌. 카우 벨 소리가 알토리 산지락을 타고 내려오는 이 마을에는 전 직원이 서서 일하는 회사가 있다. 세계적인 기능성 신발 전문 업체 MBT (Massi Barefoot Technology)의 창업이자 전 회장 칼 필러 씨가 세운 '기본테라니 다. 바로 게 걷고 바르게 서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 회사에는 의자가 없다. 대신 바닥에 특수 물리우레탄으로 제작해 탄력이 뛰어나고 부드러운 매트릭스가 깔려 있다. 한국과 스위스에 사업체를 두고 할 달 간직으로 양국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는 칼 필러 씨를 서울에서 만났다. 50대 중반의 나이인데도 그는 20대 청년처럼 몸이 곧고 근살이 다 곧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탄탄해 보였다.

칼 필러 씨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그는 '기본테라니'의 주력 사업이 될 피로 회복 겸 피행성 질환에 좋은 피트니스센터를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 설명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 인터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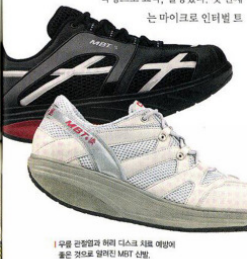
레이닝이 가능한 트레드밀의 개발과 보급이다. 그가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기본테라니' 이 기존 제품과 다른 것은 15초마다 속도와 기울기가 달라지도록 되어 있다는 것. 그는 "인체공학적으로 사람은 오래 걸으면 처음과 달리 자세가 흐트러져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심장에 무리가 와서 피로도가 빨리진다"고 설명했다. 일정한 간격으로 속도와 높이에 변화를 줌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느슨해지는 신체 부위의 근육과 신경을 각성하게 하는 원리라고.

"요즘 한국 사람들 파워 워킹 많이 하는데, 같은 속도도 오랫동안 그렇게 걸으면 관절이나 허리에 장광이 안 좋습니다. 천천히 걷다 빨리 걷다를 반복하고 뛰게 하는 등 인터벌 트레이닝을 해야 무리도 없고 건강에 좋아요."

둘째는 걷기 효과의 양과 질을 높여 주는 매트릭스이다. 그는 MBT 신발의 핵심기술을 활용해 특수 물리우레탄으로 된 매트릭스 개발했다. 이 매트릭스는 발바닥 전체를 덮고 탄력이 있어 발을 편안하게 해준다. 하루 종일 걷거나 격한 운동을 하는 사람도 이 매트릭스 위에서 걷기 운동을 하면 피로가 풀리고, 평소 안 쓰던 미세 근육을 강화시켜서 피행성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

"기본테라니 위 걷기는 운동 전후 피로 회복에 좋아요. 스위스에서는 무릎 근육이라든가 아킬레스건에 문제가 있는 운동선수들이 애용하고 있고, 장시간 서서 일하거나 앉아 있는 사람의 자세 교정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의자가 사라진 몸을 알아나 피곤하게 하고 자세를 흐트러지게 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이탈리안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로 디자인된 MBT 신발

TOP 079

리히 공대 4학년 재학 중이던 1976년 전공 실습 차 한국에 왔다. 가짜로 나라를 두고 면 아시아 국가에 온 것은 6.25 고교로 스위스에 온 결정한 친구 때문이었다고 한다.

"영등포에서 지내던 인근 시장에 자주 놀러 갔는데,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자라온 친구 시장 딱딱한 풍경이 너무 재미있고 매력적이었죠. 아마도 처음 가게 사장님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시장에서 돈의 흐름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스위스로 돌아간 그는 2년 후인 1979년 어학연수생으로 다시 한국을 찾았다. 서울에 언어 교육원에 다니던 중 10.26과 광주민주화운동이 터지고 학교가 문을 닫았다. 스위스로 돌아갈까 고민하다 마침 한국이 시장 개방하는 것을 보고 유럽에서 스위스 테니스 용품 등을 가져와 팔기 시작했다.

"장사가 아주 잘되었어요. 나중에 치즈와 견을 모험해 남동쪽까지 갔죠"

에 손을 얹어요. 결국 체력과 돈 모두 바라요."

그가 낳은 2남 2녀와 양자 모두 아이들 넷까지 그가 책임져야 할 식솔이 9명. 가족들이 어떻게 먹여살릴까 궁리 끝에 만들어 낸 것이 관절염 치료용 기능성 신발로 세계적인 인기품인 MBT 신발이었다.

"1996년 연구를 시작한 2000년 시장에 내놓았습니. 마시어족이 있는 방식과 한국에서 맨발로 논밭을 가꿨을 때 느낀 부드러운 편안함을 떠올리며 개발했죠."

꿈이 없는 MBT 신발은 딱딱한 바닥을 걸을 때도 탈발로 데지를 받는 것 같은 효과를 낸다. 걸을 때 뒤통수부터 목까지의 뼈는 근육이나 관절을 굽고 사용하지 하는 게 특징. 기능성 신발이 지만 일반인도 많이 신어 스위스와 케주얼, 뉴비즈니스, 뽕, 뽕신화도 나와 있다.

MBT 신발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출시 이후 매년 두 배의 매출이 늘어 2006년에는 세계 21개국에서 200만 켈리가 판매됐다. 그는 그러나 급성장 가도 있던 회사를 2006년 9월 미국 스포츠 기업에 매각했다.

한국 총판과 호주 총판은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MBT 신발의 핵심기술인 중창을 만드는 공장은 여전히 부산에 두고 있다. MBT 매트릭스 '기본테라니'를 설립한 그는 자신의 수입 중 10%를 꾸준히 투자해 KM(코리아 빌리)와 약)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KM재단은 한국과 스위스는 물론 아프리카, 남미, 러시아, 동유럽 등지의 소외된 재능을 돕고 있다. 그는 자신의 사업 목적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TOP

관심분야 TOP CLASS 기자 사연 의무주

안문 폴 친화하다
세계적인 기능성 신발 개발
이 무렵 그는 이화여대에 다니던 고등학생 때부터 나타났는데 변했고,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얼마 후 가족과 함께 고향인 스위스로 향했다. 과거 축구 선수로 뛰다 부상을 입은 아킬레스건과 허리, 무릎 등에 심한 부종증이 나타나서였다.

"그랑으로 돌아가 농장을 하며 마약중독자를 위한 재활원을 운영했어요. 당시 스위스에는 마약중독자들이 넘쳐났죠. 거리를 떠도는 중독자들을 데려와 치료하고 일거리를 줬어요. 연부주어었어요. 그들은 돈이 생기면 다시 마약